

기후변화가 가져온 재앙...지구촌 자연재해 몸살

파키스탄 석달간 계속된 폭우로 국토 33% 침수·1100명 이상 사망 미국 캘리포니아주 폭염 기록 연일경신...곳곳 산불에 전력난 아우성 지구의 허파 아마존 산림 훼손 심각·알래스카 엑시트 빙하 녹아내려

지구촌 곳곳이 이상 기후로 신음하고 있다. 폭우로 아동 10만 명이 피해를 입는가 하면, 기록적 폭염으로 화재와 전력 공급 차질도 우려되고 있다.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이 지키겠다고 다짐했던 알래스카의 '엑시트' 빙하가 녹아내리고 아마존 원주민들은 열대 우림을 지켜달라며 국제사회에 호소하고 있다.

◇최악의 폭우에=최악의 폭우를 겪고 있는 파키스탄은 국토의 3분의 1이 물에 잠겼고 발생한 실향민의 절반은 아동으로 집계됐다.

5일 국제아동권리비정부기구(NGO) 세이브더칠드런에 따르면 지난 6월 중순부터 내린 몬순 폭우로 발생한 실향민 21만여 명 중 절반인 10만여 명은 아동이다.

심각한 피해를 본 파키스탄 국민 3300만여 명 가운데 3분의 1에 해당하는 1100만여 명이 아동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폭우로 사망한 아동과 다친 아동은 각각 360명, 1000명에 이르렀다.

파키스탄에서는 6월부터 석달간 계속된 비로 어린이 약 380명을 포함해 1100명 이상이 사망했고 가옥 100만여 채가 부서졌다.

세라프 사리프 파키스탄 총리는 이번 홍수를 파키스탄 역사상 최악의 재앙으로 선언하고 피해 복

구에 100억 달러(약 13조5000억 원) 이상이 들 것으로 전망했다. 면적으로 치면 피해 지역은 파키스탄 국토의 3분의 1에 이른다.

세이브더칠드런은 파키스탄을 인도적 지원 우선순위 국가로 지정하고 5000만 달러(약 679억 원) 규모의 인도적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기록적 폭염에=미국 국립기상청 새크라멘토 사무소는 4일(현지시간) "오늘부터 본격적인 폭염이 시작돼 주말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보됐다"며 "특히 일·월·화요일이 가장 무더울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기상청은 캘리포니아주 중앙에 위치한 센트럴 밸리 기온이 이날 화씨 109도(섭씨 42.8도)까지 올라가고 주 중반에는 115도(섭씨 46.1도)로 치솟을 것으로 관측했다.

캘리포니아 중앙에 자리한 센트럴 밸리는 태평양 연안을 따라 뻗어있는 넓은 협곡이다.

또 지난 3일 기온이 기록적 수준인 화씨 95도(섭씨 35도)까지 오른 캘리포니아 남부 도시 샌디에이고도 또 다른 기록 수위가 점쳐진다고 예보했다.

캘리포니아 내륙 지역과 로스앤젤레스는 35도 안팎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했다. 폭염이 이어지면서 전력망에도 비상이 걸렸다. 주 당국자들은 '위험한

폭염에 이번 주 내내 시달릴 수 있으며 전력망의 한계가 시험대에 오를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 폭염과 함께 화재로 발전기가 무력화돼 전력망에 더 많은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폭염이 가라앉을 기미를 보이지 않으면서 지난 2일 캘리포니아 북부 시스키유 카운티 제재소에서 시작된 화재도 아직 진압되지 않고 있다.

◇지구의 허파 아마존도 신음=아마존 유역에 있는 남미 9개국 원주민 단체는 열대우림 보호를 위한 국제 사회 연대를 촉구하고 나섰다.

4일(현지시간) '아마존 분지 원주민 단체 연대'(COICA)에 따르면 아마존 원주민 단체 정상회의(5차)가 국제 아마존의 날인 5일부터 이틀간 페루 리마에서 열린다.

브라질, 볼리비아, 콜롬비아, 에콰도르, 가이아나, 페루, 베네수엘라, 프랑스령 기아나, 수리남 등 아마존에 영토를 둔 9개국 500여개 단체에서 참여한다.

이들 단체는 유전 개발, 삼림 벌채, 대규모 단일 작물 재배, 가축 사육 등으로 오염되고 파괴되는 아마존 보호를 위해 국제사회의 연대를 촉구하는 활동 방향을 논의할 계획이다.

기후 변화 대응과 생물 다양성 보전뿐만 아니라 원주민 인권 보호를 위한 행동에도 나설 예정이다.

COICA는 또 2025년까지 아마존 80%를 영구 보존하기 위한 국제사회 차원의 협정 체결을 위해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남한 면적 63배에 달하는 630㎢에 달하는 아마존 환경 파괴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브라질 지역 아마존만 해도 2020년 8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1만3000여㎢의 열대 우림이 사라졌다. 앞선 데 덮친 격으로 화마까지 아마존을 집어삼켰는데, 브라질 당국 발표 기준으로 지난달에만 3만3116건의 화재가 발생했다. 2010년 이후 남반구의 겨울인 8월 기록 중 가장 많은 수치다.

◇알래스카 빙하도 녹아=지난 2015년 9월1일 버락 오바마 당시 미국 대통령은 알래스카주 남부 카나피오르 국립공원의 '엑시트'(Exit)라고 불리는 빙하를 바라보며 "우리 손자들이 반드시 이 빙하를 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엑시트 빙하는 '기후변화의 아이콘'으로 유명해졌다. 그로부터 만 7년이 된 지난달 29일(현지시간), 엑시트 빙하의 경계선은 엄청나게 줄었다. 관린 해처는 "2015년 오바마의 방문 이후 330m쯤 후퇴했다"며 "아직 지도에 표시되진 않았지만 지난해엔 40m 이상 더 물러났다"고 말했다.

이날 전망대까지 가는 길을 안내한 '해나'라는 이름의 NPS 파크레인저는 "1980, 90년대에는 연간 약 12m씩 빙하가 물러났는데 작년에만 약 43m 가까이 후퇴했다"고 했다.

빙하는 겨울철에 쌓인 눈이 녹지 않고 얼음으로 응축돼 더해지는 양보다 여름철에 녹아서 없어지는 얼음양이 더 많으면 당연히 길이가 짧아져 후퇴하고 폭과 두께도 얇아진다. 빙하 해동의 주범은 기후 온난화다. 2018년 제4차 미국기후평가(NCA) 보고서에 따르면 알래스카에서 기온이 따뜻해지는 속도는 전 세계 평균의 2배로 그 중 북극권 지역은 평균치의 3배 이상이다.

멕시코 레스토랑·술집 직원 미니스커트 금지 법안 발의

멕시코에서 레스토랑이나 술집 직원에게 미니스커트처럼 신체를 많이 드러내는 옷을 입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4일(현지시간) 현지 매체 엘우니베르살에 따르면 멕시코 정당인 '시민운동' 소속 후안 세페다 상원 의원은 최근 '여성에 대한 폭력 없는 삶 보장을 위한 법률' 개정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식당이나 바처럼 일반 대중을 상대하는 공간에서 일하는 종업원에게 미니스커트 또는 목 라인이 깊게 파인 상의 같은 성차별적 복장을 착용하도록 하는 것을 금지하는 게 골자다.

세페다 의원은 "식당에서 일하는 사람, 특히 여성에 대한 고정 관념과 젠더 폭력을 재생산하는 모든 행위를 노동 폭력으로 간주해야 한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멕시코 정부 홈페이지에 공개된 '여성에 대한 폭력 없는 삶 보장을 위한 법률'의 제1조는 노동 폭력에 대해 "일반적인 근로 조건을 준수하지 않는 불법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부당한 업무 배제, 위협, 협박, 모욕, 착취, 정해진 모유 수유 기간을 보장받지 못하는 차별 등이 해당된다. 여기에 의복에 대한 금지 규정도 추가하자는 게 세페다 의원의 제안이다.

그는 "(일부 업종에서) 여성업원이 짧은 치마를 입는 이런 상황은 심지어 권장되까지 한다"며 "이는 괴롭힘 같은 여러 유형의 공격에 노출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러시아 가스 차단 유럽 천연가스 가격 폭등

서방 제재 보복 조치 가스관 잠가 지난해 비해 400% 이상 치솟아

유럽 산업계가 러시아의 가스 공급 차단으로 신음하고 있다.

5일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러시아는 최근 노르트스트림-1 가스관의 정기점검 이후에도 가스관 가동을 재개하지 않으면서 유럽 산업계를 중심으로 천연가스 가격 폭등을 우려하는 분위기가 커지고 있다.

에초 러시아 가스관 운영업체 가스프롬은 가스관 고장을 이유로 3일까지는 정비를 마치고 가스관 가동을 재개할 것이라고 전망했지만 러시아가 예상을 깨고 3일 정비 시한을 넘겨 가스관 가동을 재개하지 않고 있다.

이에 지난 2일 유럽 천연가스 가격의 벤치마크인 네덜란드 TTF 선물 가격은 8월 26일 최고 가격(341유로)에서 40% 떨어진 페가와트시(MWh)당 200유로(약 27만원)까지 내려갔던 가격은 다시 상승세로 돌아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서방의 제재에 대한 보복 조치로 가스 공급을 줄이자 이미 유럽 가스 가격은 작년 대비 400%나 치솟았고 그로 인해 전기요금 등도 폭등한 상태다.

에너지 조사업체 에너지 애스펙츠(Energy Aspects)의 레온 이즈비키는 "2일만 하더라도 시장은 가스관이 재가동한다는 데 베팅했다"라며 "월요일(5일) TTF는 강하게 상승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베스트백의 네이션 파이퍼는 영국 일간 가디언과 인터뷰에서 "노르트스트림-1 가동 중단 여파로 이번 주 유럽과 영국의 천연가스 가격은 사상 최고치를 찍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러시아가 가동을 중단한 노르트스트림-1은 발트해를 거쳐 독일로 향하는 가스관으로, 러시아가 유럽에 공급하는 가스의 3분의 1을 차지한다. 러시아가 지난 주 가동 중단을 발표하기 전부터 이 가스관의 공급량은 평소의 20% 선으로 내려가 있었다.

이미 유럽 산업계는 천정부지로 치솟는 가스가격으로 인한 타격을 받고 있다. 전기요금이 폭등했고 비료와 알루미늄 제조사들은 생산 규모를 줄여야 했다. 오로라 에너지 리서치의 제이콥 만델은 "노르트스트림-1의 차단이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칠지는 유럽 국가들이 대체 천연가스 공급로를 얼마나 확보했는지에 달려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유럽 국가들은 러시아가 가스를 무기화하고 있다고 비난하지만 러시아는 가스공급을 줄인 것에 대해 서방의 제재와 기술적 문제 등의 이유를 들고 있다. /연합뉴스

요한 바오로 1세 시복미사 집전하는 프란치스코 교황



프란치스코 교황이 4일(현지시간) 바티칸 성베드로 광장에서 요한 바오로 1세 교황의 시복 미사를 집전하고 있다. 시복은 로마가톨릭교회에서 성성(聖性)이나 순교 등으로 인해 공경할만한 이를 복자로 선포하는 교황의 선언이다. /연합뉴스

타이타닉 보는데 3억4천만원 우주 이어 심해관광도 열리나

21세기 민간 관광산업이 우주에 이어 심해로 범위를 넓히는 모양새다.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4일(현지시간) 미국의 해저탐사 업체 '오션케이트 익스피디션'이 운영하는 타이타닉호 관광 프로그램을 소개하면서 해저 관광 시대가 열릴지 주목된다고 보도했다.

오션케이트 익스피디션은 돈을 받고 관광객을 잠수정에 태워 난파선이나 해저 협곡을 보여주는 민간 탐사 업체다.

그중 대표 프로그램인 '타이타닉 탐사'는 1인당 25만 달러(약 3억4000만원)를 내고 1912년 북대서양에서 침몰한 비운의 여객선 타이타닉호의 선체를 잠수정을 탄 채 돌아보는 내용이다.

타이타닉호의 선체는 1985년 대서양 해저 약 4000m 지점에서 두 동강이 난 채 발견됐다.

이 업체가 제공하는 프로그램은 잠수하고 부상하는 데 걸리는 5시간을 포함해 약 8시간 동안 진행된다. 작년과 올해 운영을 마쳤고 내년에도 참가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오션케이트 익스피디션의 스톡턴 러시 회장은 "공공기관은 타이타닉호로 돌아가기 위해 필요한 돈을 지원하지 않는다. 더 새롭고 과학적 가치도 높은 다른 곳이 있기 때문"이라면서 타이타닉 탐사에 대한 수요를 민간업체가 충족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데크의 세대교체!”



중소벤처기업부
성능인증



품질인증
Q-Mark

불에 타지 않고 물에 썩지 않는

논슬립 디자인데크



항매산 전망대



안성 죽산한미당



부여사비 창작지구

기존데크



고강도 디자인데크



습기의 의한 부식, 번거로운 유지관리
기존데크 철거 후 디자인데크 시공
국산 원재료사용으로 경제적이며
재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데크!



프론티어벤처 KIBO 02-1509001
휴먼이엔티주식회사

문의 전화 **1644-6430**

천안본사 및 공장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망향로 903-6(오목리9)